



11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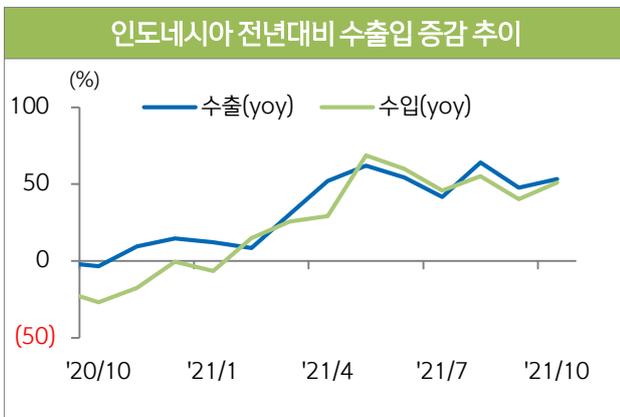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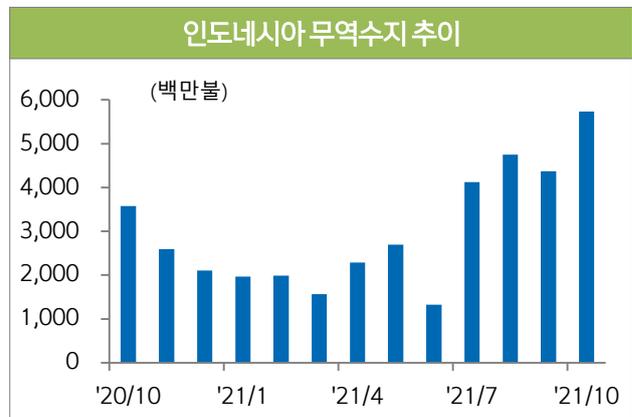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10월 월간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기록. 연간 무역수지 흑자도 최대치 기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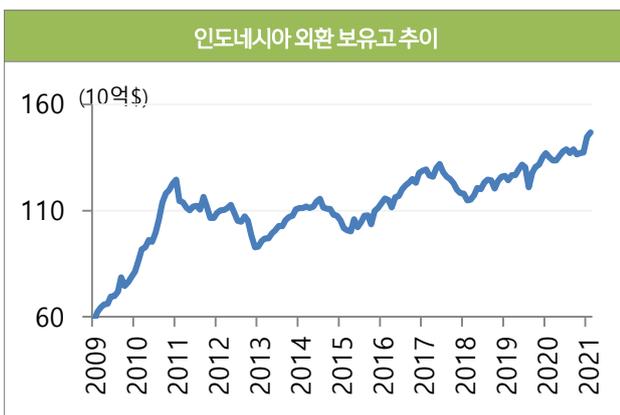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10월 수출은 전년대비 +53.4%, 수입은 전년대비 +5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올해 4월 이후 수출입 실적은 전년대비 50% 내외의 증가율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인 것이 수출 증가에 기여.** 팜유, 구리, 석탄 등 원자재 수출이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반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출을 견인하였음. 수입은 석유 및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계류 및 자본재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
- ▶ 10월 무역수지는 5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18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월간 무역수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연초대비 누적 30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에 있어 처음으로 연간 무역수지 흑자 3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11년 연간 기준으로 260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하였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연간 무역수지를 기록하게 되는 것임. **2021년 델타변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보다 부진한 상황이지만, 순수출 부문의 기여가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
- ▶ 양호한 무역수지에 힘입어 10월 외환보유고는 1,454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연초의 가파른 상승세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주요국들이 그린 인프라 중심으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2022년에는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원자재 가격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이 기대됨. **양호한 수출입과 무역 수지는 美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며 긴축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안전판이 되어줄 것임**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1.19	11.1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452.35	1,473.37	↓ -1.43	↑ 31.57	983.26 '20/11/19	1,476.57 '21/1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720.26	6,651.05	↑ 1.04	↑ 12.40	5,571.66 '20/11/20	6,720.26 '21/11/19
인도	SENSEX	59,636.01	60,686.69	↓ -1.73	↑ 24.89	43,599.96 '20/11/19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560.37	3,539.10	↑ 0.60	↑ 2.51	3,347.19 '20/12/11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90.27	2,467.16	↑ 0.94	↑ 6.91	2,160.91 '21/03/09	2,503.85 '21/07/22
홍콩	H	8,970.67	9,114.37	↓ -1.58	↓ -16.46	8,412.72 '21/10/06	12,228.63 '21/02/17
	항셱	25,049.97	25,327.97	↓ -1.10	↓ -8.01	23,966.49 '21/10/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2,971.02	2,968.80	↑ 0.07	↑ 3.39	2,547.42 '20/11/19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1.19	11.12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09	2.12	↓ -3.30	↓ -48.80	2.06 '21/09/15	2.65 '20/11/19
인도네시아	6.04	6.05	↓ -1.10	↑ 15.0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34	6.37	↓ -2.40	↑ 47.90	5.82 '20/12/04	6.39 '21/10/18
중국	2.93	2.94	↓ -0.80	↓ -21.8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38	2.35	↑ 3.00	↑ 65.80	1.58 '20/11/23	2.56 '21/10/29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1.19	11.1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650.00	22,645.00	↑ 0.02	↓ -1.94	22,645.00 '21/11/12	23,169.00 '20/11/20
달러-루피아 (IDR)	14,232.00	14,219.00	↑ 0.09	↑ 1.30	13,895.00 '21/01/04	14,615.00 '21/04/15
달러-루피 (INR)	74.24	74.44	↓ -0.28	↑ 1.60	72.33 '21/02/24	75.52 '21/10/12
달러-위안 (CNY)	6.39	6.38	↑ 0.12	↓ -2.15	6.37 '21/05/28	6.59 '20/11/24
달러-원 (KRW)	1,185.12	1,179.40	↑ 0.48	↑ 9.08	1,081.81 '20/12/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G20의 시범 안건으로 에너지 전환을 발표 예정



❖ 요약 및 시사점

2022년 G20 의장국이 되는 인도네시아는 206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면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 산업을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임. 석탄화력발전 중단 및 대체를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해보고 본격적 사업모델화해보겠다는 계획을 발표

- 경제 조정부 장관은 G20 의장국으로써의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을 시범 안건(Pilot Project) 중 하나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석탄 화력 발전을 중단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장관은 석탄 화력 발전의 조기 중단을 위해서 아시아 개발은행(ADB)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가동중인 석탄 화력 프로젝트들의 내부수익률에 맞춘 잔여 수익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음.
-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기간과 중단 조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이러한 모델을 시도해 볼 것이라고 하였음. 이러한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지불 모델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에너지 자원이 인도네시아의 국력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이며, 석탄 화력 발전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이러한 석탄 화력에 근거한 기저 발전은 앞으로 지원 받기 어려우며 수력 발전으로도 일정 부분을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다만, 자바섬에서의 수력 발전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였음. 자바섬이 수력 발전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존재하는데 실제 수력 발전 설비가 북부 칼리만탄이나 맘바로 지역같이 먼 곳이 지어진다면 대규모 전력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음.



팜오일에 대해 지속가능한 팜오일 개발을 요청



❖ 요약 및 시사점

올해 팜오일 산업은 국내외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식물유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는 바이오연료 사용의 증가를 통해 대외 건전성에도 기여하였음. 이러한 팜오일 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이 될 수 있도록 R&D 강화가 요구됨

- 경제조정장관은 연구자들이 인도네시아의 핵심 사업인 팜오일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음. 부가가치를 만들고 하류부문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여러 연구들을 요청한 것임.
-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산업은 非석유가스 수출에 있어서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구성에서도 전체 GDP의 3.5%를 담당하고 있는 거대 산업임. 그렇기 때문에 팜오일 산업은 향후에 3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장관은 강조하였음. 우선 팜오일 상하류 부문의 발전을 통합해내는 산업의 통합과 플랜테이션의 개선, 산업 부문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였음. 두번째로는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캐파를 높이고, 기술 발전 및 농민들의 권한 강화를 요청하였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과 향후 B100 정책 및 바이오 항공유 시장으로까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발전을 요청하였음.
- 2020년에 팜오일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통해서 38조 루피아(27억 달러) 수준의 디젤유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었고, 2021년에는 B30 정책을 통해서 외화수입의 56조 루피아(40조 달러) 상당을 기여하였다고 하였음. 또한 B30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팜오일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올해 팜오일 가격의 슈퍼사이클을 맞아 톤당 1,283 달러에 육박하는 상승을 가져왔음. 이러한 팜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농민들이 팜 열매 다발을 거래하는 가격도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 장관은 팜오일 관련 상류 부문에 대해서는 종자의 개선, 비료 및 농기계의 발전, 경작 문화와 수확 기술의 개발을 요청하였으며, 하류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 확대와 친환경적인 생산 등을 강조하였음. 정부와 연구기관, 관련 산업체들이 함께 협력을 통해 R&D를 늘려가야 된다고 하였음



감독청, 자본시장 규모가 GDP의 70%에 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시가 총액 규모가 지금은 GDP대비 50% 수준이지만, 향후 7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는 높은 시총비율을 나타내지만 거대인구국가 들은 50~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 감독청(OJK)은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시가 총액 규모가 GDP대비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이러한 수치는 인도네시아 자본 시장이 더욱 안정적이고 견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음.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기준 국내 자본시장 시가 총액 규모는 8,166.56조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GDP의 50.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며, 일본처럼 GDP대비 7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음.
-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GDP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홍콩이며, GDP대비 869.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시가 총액 규모가 GDP대비 100%를 넘는 국가들이 여럿 있으며, 싱가포르와 같이 작은 국가들은 109%, 호주와 같은 국가도 129%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가 많은 미국의 경우 GDP대비 52%, 중국의 경우 47%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99.95%, 99.73%로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GDP대비 78.11%를 차지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2021년 재정 적자가 GDP대비 5.2~5.4% 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는 당초 예산계획에서 잡아둔 GDP대비 5.7% 수준보다 낮은 5.2~5.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무장관이 발표하였음. 올해 관세 및 세외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입이 개선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 재정적자가 줄어들면 대외 건전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재무장관은 올해 말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규모가 873.6조 달러 수준으로 GDP대비 5.2~5.4%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당초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1,006.4조 루피아(GDP대비 5.7%)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연간 예산 계획에서는 잡아두었지만, 실제 재정 적자 규모는 계획대비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올해 재정 수입이 2021년 10월말까지 18.2%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었다고 밝혔음. 세수수입은 2020년 10월말까지의 누적 금액에 대비하였을 때 15.3% 증가하였음. 여기에 관세 수입과 세외 수입(PNBP)가 각각 25.5%, 25.2% 증가한 것이 크게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음. 지난해에는 연간 관세 수입이 5.5% 증가하였었지만, 세외수입은 16.3% 감소하였었는데 올해는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
-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하였다고 하였음. 올해 말에는 10.4%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 부처 및 기관들의 지출이 14.8% 증가하는 영향임



전기차 보급 목표는 탄소배출 감축 약정을 반영하고 있음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206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206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하는 한편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 참여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생산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은 인도네시아의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축소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양 및 투자조정 장관이 밝혔음. COP26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달성 계획은 명확해졌으며, 여기에 전기차 산업 발전 및 전기차 보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한다는 계획하에서 모든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전기차량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니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니켈 원천 수요량은 2,280킬로톤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2차 전지 분야의 성장이 향후 니켈 수요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장 요인이 될 것임. 2027년까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777GWh에 달할 것이며, 2029~2030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용량 수요는 9.8~11.9GWh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2차 전지 및 전기차 수요 증가의 상황에서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자원 보유량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음. 인도네시아는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등 전기차에 필요한 원자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 전기차 관련 생태계를 인도네시아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면서, 원자재 채굴, 제조업 및 충전, 재활용과 관련한 인프라 전반의 개발이 복합적이고 크게 진행될 것임을 밝혔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1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11억 달러의 투자금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규모는 컨소시엄으로 추진되는 총 98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의 일부임. 2023년 초기 생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설비 용량이 증가될 예정임.
-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는 31,859개의 공공 전기차배터리 충전소(SPCLU)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67,000개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SPBKLU)를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임.

(출처 : Antara News)



정부, 금속 산업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독려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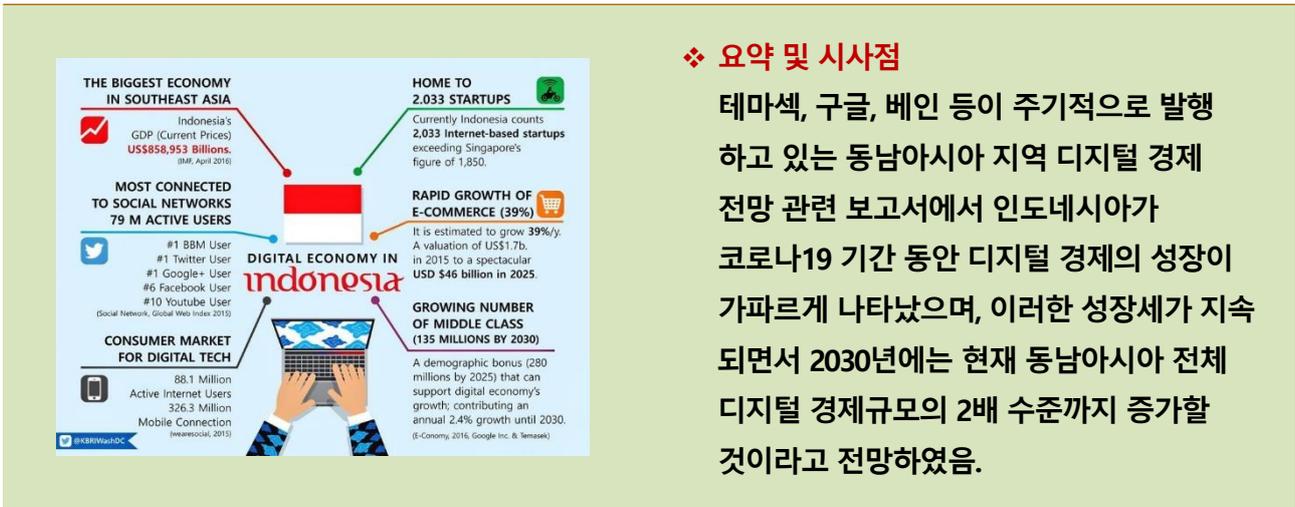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금속 제련에서 전기차 생산에
까지 이르는 수직 계열화된 산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일반 직업 교육에서부터 대학에서의
전문 교육까지 단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

- 해양 및 투자조정부는 몇몇 지역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에서 인적 자원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North Maluku, Southeast Sulawesi, Central Sulawesi, Riau 섬 지역 등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의 개발과 관련한 직업 교육 관련 장단기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산업인력 개발 위원회(BPSDMI)와 인적자원부의 직업 및 생산성 훈련 개발 담당자가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립 대학들에 직업 교육 프로그램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임. 또한 지역 마다 직업 교육 시설도 설립이 진행 중임.
- 이와 더불어 현재 있는 시설과 인프라도 재검토를 통해서 직업 교육 시설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과 관련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업 학교 수준, 대학 수준, 훈련 전문 기관 및 기술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과정들을 이해 관계자들과 마련해가기로 하였음. 금속 산업에서 직업 교육을 함에 있어서 중국 본토 중국어의 언어 학습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음.



인니, 2030년이면 디지털 경제 규모가 현재 동남아시아의 2배가 될 것



❖ 요약 및 시사점

테마섹, 구글, 베인 등이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경제 전망 관련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30년에는 현재 동남아시아 전체 디지털 경제규모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구글, 테마섹, 베인 등이 공동 발표한 최근 리포트에서 인도네시아의 2030년 인터넷 경제 규모가 3,300억 달러 규모로 현재 1,700억 달러 규모인 동남아시아권의 디지털 경제 규모의 2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되었음. 인도네시아 혼자만으로도 현재 동남아 전체의 디지털 경제 규모의 2배 가량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임.
- 'Roaring 20s : The SEA Digital Decade'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경제가 2025년까지 현재의 700억 달러에서 2025년까지 1,46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주된 성장 동력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경제에 대한 6번째 보고서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를 다루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운송, 음식료, 온라인 여행, 온라인 미디어, 금융 서비스 부문 및 헬스케어와 에듀테크 등 디지털 경제 산업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다루고 있음.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영향과 코로나19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디지털화를 어떻게 가속화하였는지도 다루고 있음.
- 코로나19의 발생에서부터 2021년 상반기 까지 인도네시아에서만 2100만명의 신규 디지털 소비자가 창출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72%는 기존 도심지를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비도심의 지방 지역에서 가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침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이전대비해서 3.6배나 많은 소비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영향으로 2021년에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두자리수 성장을 보였음.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부문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는데, 2020년 350억 달러 수준에서 530억 달러 수준으로 5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온라인 미디어 부문이 48%, 운송 및 음식료 부문이 36%로 증가를 보였음.
-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를 넘어서 가장 뜨거운 디지털 경제 관련 투자처가 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경제의 신기원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 Jakarta Globe)



벤처캐피탈 Antler, 향후 4~5년간 100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투자 계획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 업체들의 인도네시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초기 투자 전문의 Antler가 향후 5년간 100개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5만개 지원서가 접수되는 등 창업 열기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초기 벤처투자 전문회사인 Antler는 향후 5년간 100개의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음. Antler는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에게 이번 초기 투자 프로그램의 기회가 열려있으며, 스타트업 팀, 비즈니스 아이디어, 상품 및 목표 시장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음. 벌써 50,000개가 넘는 지원서들이 밀려든 가운데 Antler는 이 중 3~5%의 상위 스타트업들만이 선정될 것이라고 하였음.
- 선정된 각 스타트업 기업들은 7만 달러의 현금 지원 및 3만 달러 규모의 Antler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어 총 10만 달러 규모를 투자받게 되는 것임. 매년 대략 2개 집단 정도가 선정되고, 각 집단에서는 10~15개 스타트업들이 선정되어, 매년 20~30개 스타트업들이 선정 운영될 것임. 향후 3~5년간 약 매년 2~2.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임.
- Antler는 2017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벤처투자기업으로 16개 국에 걸쳐 350개 기술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